

신행수기 당선작(관음종 총무원장상)

나의 탈바꿈 ①

김형신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 것도 인연인가? 가끔씩 만나는 큰언니가 해주는 불교 이야기가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졌다. 불교는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내 자식 할거리에 해달라고 부처님 앞에 불전 놓고 북을 치는 그런 종교로만 알았다.

만날 때마다 언니의 부처님 이야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이가 사십대 후반이 되니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였다.

정말이지 불교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 그래서 불교교육원에 등록을 하고 1년동안 불교의 기본교리, 사상, 문화, 예술, 역사, 참선과 생활 등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교육을 수료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서적도 사서 보고 <반야심경> <천수경>도 외우고 <금강경> 독송과 강의도 듣고 혼자서 재미있게 불교에 점차 깊이 몰입했다.

평소에도 내 생각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 정신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철저한 불자적인 하지만 알고보면 실망을 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느 스님에게서 팔만사천 법문을 다 알아도 한가지 경험만 못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나의 신행 생활은 행함을 기본으로 하라고 다짐했다.

처음엔 절에 가서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대중공양할 때 부끄러워 공양도 못하고 집으로 그냥 오기도 한 속 딱이었지만 매일 108배도 해보고 아침 밥 하거니를 단정히 하고 간단한 예

복도 해보았다. 그러나 뭔가 잡혀지는 것 없이 지냈다. 그러던 중에 한가지 체험을 하게 되었다. 차를 몰고 큰길에 가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하고 어떤 좋지 않은 기운이 내 마음을 잡고 있었다. 이럴때 스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관해 보아야지 하며 운전석에서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고 관하기 시작했다. "주안공 당상이 있다면 신장이 되어 나를 지켜! 너만이 할수 있잖아."

큰길에 가서 불안을 보고 집으로 오

언니의 부처님 이야기는 가랑비에  
 옷젖듯 조금씩 조금씩 젖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스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다 알아도 한가지 행함만 못하다는 말씀을  
 듣고 실천을 내 신행의 기본으로 삼았다

무엇이 내자식을 반항하게 만들었을까  
 매일 새벽 아들 방앞에서 삼배를 올리며...

는 길이었다.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있는데 정말 할나에 큰 사고를 면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내 뒷차가 내 차와 부딪힐 상황인데 순간에 핸들을 꺾어서 내 옆차를 들이받았다!! 참 놀라운 일이었다.

그 뒤로 불교 공부에 신이 났으며 환희심에 젖기도 했다. 그러나 내 자신 공부기 좀 되나보다 하고 생각하면 작은 경계에 부딪쳐서 나가 떨어져 본래 자리로 와 있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무슨 공부가 되나 하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지려 1년반쯤 되어서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왕초보 신도인 나는 구역

적이고 반항하며 얘기도 없이 시내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기도 했다. 타이르기도 하고 고함도 쳐보고 매도 들어보았지만 더욱더 나와이 사이는 멀어졌다. 어쩌다 부드럽게 말을 걸어도 냉담하게 예, 아니오 로 더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앉아 내 마음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무엇이 내자식을 그렇게 만들었나 하고...

나 는 내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집착이 많았음을 깨달았다. 그것도 자식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나의 위영원 마음이었으니, 그것부터 놓기로 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 하

으로 가기도 했다. 그리고 학교갈 때와 집에 올때 따뜻한 눈길로 인사하고 갈때에도 머리 쓰다듬고 엉덩이도 두드려 주고 밤에 브레드 해주지만 얼얼불은 마음은 쉽게 녹질 않고 손으로 해 푸러치거나 돌아 놀기도 했다. 그럴 때에는 그래 이젠 철저히 죽는 일 뿐이다 하며 그렇게 지냈다.

1년 조금 지나고 아들이 고3이 되었다.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반에 붙어서 따로 늦게까지 선생님 감독하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어느날 담임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우리 애가 일주일에 나물을 하지도 않는 과외를 하러 간다고 일찍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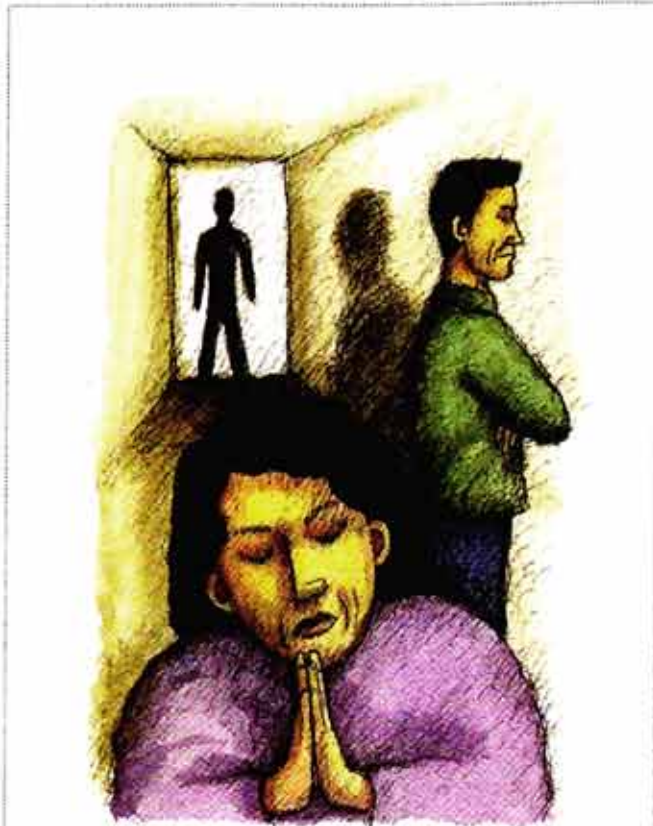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는 것이었다. 오후 6시에 나가 밤 12시까지 무얼 하든 오는지 기가 막혔지만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고 아직 우리에게 내가 타 이르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상가상으로 막내방을 청소하다 보면 어른들이 신는 앞이 뾰족한 겨자색 구두를 발견하게 되고 대학생인 누나와 형한테도 없는 휴대폰이 나오고 비

비며 외제상표의 비싼 옷도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앉아 있어보면 고등학교생들이 어른들이 입는 옷을 입고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것을 보고 그림 부르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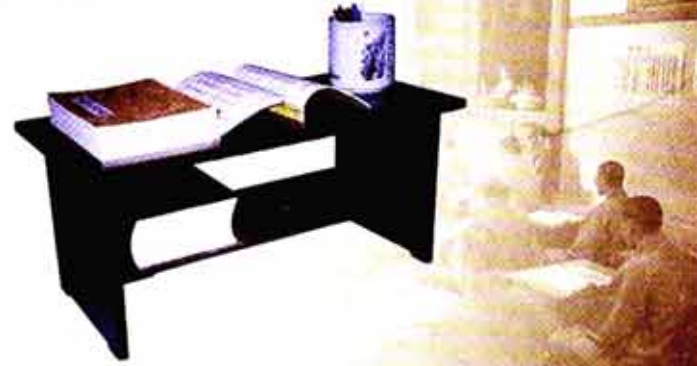
실상가상으로 막내방을 청소하다 보면 어른들이 신는 앞이 뾰족한 겨자색 구두를 발견하게 되고 대학생인 누나와 형한테도 없는 휴대폰이 나오고 비

(계속)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승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재질 : ASH(느름 원목)  
 ■규격 : 가로720x세로340x높이320(단위mm)  
 ■가격 : 8만5천원

구입문의 :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접식 팔각등은  
 풀침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사용하는 연등입니다.

- 팔상성도 (八相成道)
-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에서의 여덟가지 중요한 중생제도를 위한 모습
- ①도솔대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 ②비림강생상 물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
  - ③사문유관상 사방의 문으로 나가서 중생들의 고통을 관찰하는 모습
  - ④유심출가상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 ⑤심산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 ⑥수하함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들을 탈복시키는 모습
  - ⑦축원전법상 녹야원에서 최초로 불법을 설화하는 모습
  - ⑧왕림일반상 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

접 등



· 팔상성도 장엄 팔각등(원색 칼라)  
 · 반야심경 장엄 팔각등(원색 칼라)

■규격 : 大 폭 310mm / 높이 330mm  
 ■가격 : 2,300원  
 ■규격 : 小 폭 270mm / 높이 280mm  
 ■가격 : 2,100원

●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와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리적인 힘에 짓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 걸고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후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조립 등



● 봉축 장엄팔각등(원색칼라)  
 ● 만다라 장엄 팔각등(원색칼라)

◆규격 : 폭 230mm ◆높이 : 230mm  
 ◆가격 : 2,300원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인터넷 주문 : http://mall.buddhapia.co.kr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택배 발송  
 ※ 촛대, 등걸이, 이불표 포함